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85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음력 9월 25일)

전남광주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자치구 재정부담 우려

내년 보험료 64억…시군구 38억 분담

광주 4개구 "재원 분담 협약 의무화를"

분담률 변경땐 보험 가입 차질 가능성

市, 조례 미반영…추후 협의 조정 방침

"기존 보장 유지…향후도 비슷한 수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안전보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향후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재원 분담 기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3일 전남광주시와 광주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시는 최근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특별시가 시·군·구에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각 시·군·구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4억2천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특별시가 26억3천9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7억8천400만원은 27개 시·군·구가 분담한다.

문제는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의 보험 운영 방식과 재원 분담 구조가 달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남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한 반면, 광주는 시가 14개 보장 항목을 직접 운영하고 5개 자치구가 각각 6-8개 항목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광주 자치구들은 전남 시·군과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분담 비율이 적용될 경우 기존 광주시가 부담하던 보험료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추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져 결국 주민들의 보장 혜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구·서구·남구·광산구 등 광주 4개 자치구는 지난 9월 진행된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시와 시·군·구가 매년 재원 분담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자치구와 업무협의를 통해 재원 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동구 관계자는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 등을 지원받고 재정자주도가 40-50%대인 반면 동구는 29.8%에 불과하다"며 "기존 광주시가 부담하던 보험료까지 자치구가 떠안게 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험 가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동구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은 올해 6천만원에서 내년 8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존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남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는 최근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공통 보장 항목 15개의 보험료를 전액 특별시가 부담하고, 자치구는 기존에 자체 운영하던 항목의 보험료를 종전대로 부담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다만 자치구들은 내년도 재원 분담 방안에 의견을 모았더라도 2028년 이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분담 기준 변경으로 보험 가입과 주민 보장 혜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재원 분담 협약을 체결하는 의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원 분담 방안은 현재 최종 방침을 정하는 단계로, 공통 보장 항목 15개의 보험료는 특별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 예산은 자치구와 협의 없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협약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2028년 이후 분담률까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기존 광주시가 부담하던 보장 항목은 특별시가 그대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그날의 함성 그대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공연

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학생,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 320여개 학교에서 5만4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항일 시위운동이다. /조영권 기자

호남 반도체 폐수 하루 50만t…처리시설 확충

전남광주시, 2029년까지 32만t 1차 가동

팹 증설 맞춰 추가 18만t 처리 대책도 마련

총 예산 국비 등 5천936억…1차 34억여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루 최대 50만t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가동 시점에 맞춰 1차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증가분은 추가 시설 확충과 기존 산업단지 처리시설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3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조성할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팹 4기가 하루 65만t의 용수를 사용할 경우 약 50만t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용수 대비 폐수 전환율 77%를 적용한 수치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반 산업폐수와 달리 공정별 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한 처리가 필요하다. 구리와 불소, 암모니아 등 개별 팹에서 별도 관리해야 하는 물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1차 처리하고, 이후 배출되는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다시 정화하는 방식이다.

공공처리시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을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처리하게 된다. 처리수는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접한 영산강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대규모 폐수 발생에 따른 처리용량 확보뿐 아니라 방류수의 수질관리와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시는 팹 가동 일정에 맞춰 폐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하루 32만t을 처리할 수 있는 1차 시설의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한다.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3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은 국비(70%) 등 5천936억원이며 이 중 1차 시설에는 34억여원이 소요된다.

시의 현재 구상대로라면 1차 시설은 팹 2기 이상의 추가 증설이 예상되는 2031년 상반기까지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체 생산시설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18만t의 폐수는 별도 처리시설 증설이나 기존 시설 활용 등을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평동산업단지와 나주 에너지밸리 등 인근 산업단지의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실제 연계 여부는 기존 시설의 여유 용량과 폐수 성상, 처리공정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아직 처리시설 계획이 기본 구상 단계라는 점이다. 시간 최대·일 최대 폐수 발생량과 지하수 유입량, 팹별 가동 시기에 따른 단계별 발생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시설 규모와 사업비, 처리 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광주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처리 문제를 장성군과의 협력으로 해결한 바 있다.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된 투자에 따라 하루 폐수 발생량이 6천t에서 9천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분 3천t을 장성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기수희 기자

Today

도박의 늪, 무너지는 일상 6면

전남대병원 '모야모야환우모임' 성료 10면

KIA 결산-상위 도약은 '마운드의 힘'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